

# 2경기 총 35개 슈팅에 1골 벤투호, '골결정력' 높여야

해법은 스피드와 과감한 슈팅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한국팀 일정			
21년 9월 2일	*이라크전	0:0 무	
9월 7일	*레바논전	1:0 승	
10월 7일	*시리아전		
10월 12일	이란전		
11월 11일	*아랍에미리트전		
11월 16일	이라크전		
22년 1월 27일	레바논전		
2월 1일	시리아전		
3월 24일	*이란전		
3월 29일	아랍에미리트전		

\*한국 홈 경기

카타르 월드컵 22년 11월 21일 ~ 12월 18일

자료/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축구협회



7일 오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대한민국과 레바논의 경기가 권창훈의 결승골로 1-0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다. 경기 종료 뒤 이날 부상당한 손흥민(가운데)이 그라운드로 나와 권창훈(오른쪽)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레바논의 '수중 침대 축구'를 이겨낸 벤투호의 해법은 거칠지만 과감한 슈팅과 스피드를 끌어올린 측면 공격이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에서 권창훈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벤투호는 레바논전 킥오프 2시간 전에 핵심 공격자원인 손흥민(토트넘)의 종아리 부상에 따른 결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두운 분위기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위기의 순간을 맞아 벤투 감독은 색다른 베스트 11 선발 명단을 공개했다. 이라크전에 나선던 전방 공격진 3명을 모두 바꾸는 '로테이션'을 선택했다.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조규성(김천)이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서고 좌우 날개로 나상호(서울)와 황희찬(울버햄프턴)을 선발로 내보냈다.

최전방 공격진이 바뀐 벤투호는 공격 방법도 달라졌다.

그동안 후방부터 다소 답답한 빌드업으로 '완벽한 기회'를 잡으려던 시도를 버리고 황희찬의 과감한 슈팅을 앞세워 롱 패스로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려는 방식을 선택했다. 비록 전반전에 상대 골키퍼의 선방과 전반전부터 시작된 레바논 선수들의 빡빡한 '침대 축구' 여파로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벤투호는 공격 전술에서만큼은 이라크전과 비교해 큰 활기를 띠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조규성 대신 황의조가 투입되고, 후반 13분 나상호 대신 송민규(전북), 이동경(울산) 대신 권창훈(수원)이 교체로 들어가면서 벤투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송민규가 오른쪽 날개를 맡으면서 황희찬은 왼쪽 날개로 이동했다. 벤투 감독은 스피드가 빠른 황희찬과 송민규를 좌우 날개로 재배치했고, 이는 득점으로 이어졌다.

황희찬이 후방에서 왼쪽 측면으로 투입한 불을 황희찬이 스피드를 살려 빠르게 돌진한 뒤 킥백을 했고, 2선에서 전방으로 침투한 권창훈이 원발 논스톱 슈트로 결승골을 만들었다.

빡빡한 레바논의 2열 수비라인을 기존의 느린 빌드업 과정을 버리고 측면과 2선 공격수의 빠른 전방 쇄도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 낸 멋진 장면이었다.

비록 낮은 선제골이 터졌지만, 레바논도 실점

이후 공격에 나서면서 한국은 더 많은 역습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결정력이다. 한국은 이날 무려 20차례 슈팅(유효슈팅 7개 포함)을 시도해 1골에 그쳤다.

벤투호는 이라크전(0-0무) 15개 슈팅까지 합쳐 2경기 동안 총 35개의 슈팅을 때려 1골밖에 넣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10월 두 차례(7일 시리아 홈 3차전, 12일 이란 원정 4차전) 최종예선 경기를 치러야 하는 벤투호 코칭스태프는 '피니시 능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연합뉴스

# “데뷔골 순간 너무나 행복”

광주FC 특급 루키 엄지성

데뷔시즌 26경기 출전 3골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노력  
롤모델은 손흥민 선수  
리그서 잘하면 기회 올 것



“준비된 자” 엄지성이 화려한 마무리를 위해 스피드 훈련을 다시 조여왔다.

A매치 휴식기를 보낸 광주FC가 11일 수원 원정을 통해 연습 있기에 나선다. 벼랑 끝에 섰던 광주는 인천전을 시작으로 대구, 성남을 상대로 3연승을 완성했다. 다시 시작되는 리그, 패기를 앞세운 ‘특급 루키’ 엄지성이 공격 전면에 선다.

금호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들어 엄지성은 강렬한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다. 26경기 모두 출전한 엄지성은 3골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4월 4일 인천과의 7라운드 홈경기에서 0-1로 뒤진 전반 추가 시간에 프로 데뷔골을 장식했다. ‘막내’의 활약에 힘을 낸 광주는 후반 종료 직전 터진 이희균의 ‘극장골’로 2-1 역전극을 펼치며 광주전용구장 첫 승을 신고했다. 엄지성은 이 경기를 통해 프로 첫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2호골은 8경기 연속 무승 부진을 끊었다. 엄지성은 7월 21일 20라운드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머리로 선제골을 넣었고, 팀은 3-1로 9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8월 20일 26라운드 대구 원정에서 엄지성이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0-1로 뒤진 후반 14분, 프리킥 상황에서 이음표이 띄운 공을 오른발로 터치해 동점골을 만들었다. 여봉훈의 역전골 시작점에도 엄지성이 있었다.

망설임 없는 과감한 슈팅과 플레이로 놀라운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엄지성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웃었다.

엄지성은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올 시즌 5경기 출장이 목표였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필드에서 TV로 지켜보던 선수들과 뒤편에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지금도 적응하고 있다. MOM·베스트 11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지성에게 2021시즌은 그냥 찾아오지 않았다. 피나는 노력 끝에 얻은 시간이다.

엄지성은 “데뷔골을 넣은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축구 하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그 기분이 아직도 남아있다. 소름 돋을 정도다.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기분이었다”며 “당시 운이 좋게 공이 왔고 침착하게 밀어 넣었다. 기술적으로는 정신적으로든 준비가 되어있었다. 그래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머리로 만든 두 번째 골도 준비와 자신감의 결과다. 엄지성은 “내 장점 중 하나가 점프력이라고 생각한다. 헤딩도 자신 있다. 그냥 그것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준비가 돼있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 골 뒤에는 ‘킥러 투혼’이 있었다. 편도선

이 심하게 부어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엄지성은 링거를 맞고 대구 원정에 나섰다.

타고난 재능에 간절함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다양한 순간을 준비했고, 수많은 연습을 통해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든 ‘노력’의 결과.

엄지성은 “고등학교 때 연습을 진짜 많이 했다. 경기장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슈팅 연습 많이 했다. 그 연습이 지금 바탕이 됐다”며 “공을 잡으면 못 놓더라도 슈팅을 시도하려고 한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니까 주위 의식 안 하고 책임지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팬들의 함성 속에서 경기를 뛰면서 자신감도 얻고, 그만큼 꿈도 커지고 있다.

엄지성은 “슬럼프가 와서 힘들기도 했는데 좋은 경기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안 되는 것도 됐다. 시도도 하게 된다. 아직 도움이 없는데 팀에 녹아들어서 포인트 5개 이상을 올리겠다. 사이드에서 불을 잡고 안으로 감아 차서 구석에 넣는 골을 만들고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도 목표다(웃음)”며 “피지컬, 스피드에서 확실히 차이도 느끼고 이 부분이 부족하지만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리고 자신의 큰 목표인 ‘손흥민’을 위해 달릴 생각이다.

엄지성은 “롤모델이 손흥민인데 축구하는 동안에는 변함 없을 것 같다(웃음). 동기부여가 된다. 아렸을 때부터 존경하고 봐 온 선수와 함께 대표팀에서 뛰어보고 싶다. 같이 훈련을 하는 자체만으로 내 축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며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수원원부터 부지런히 땀 흘린다. 엄지성은 “수원전 잘 준비해서 승리하고 싶다. 데뷔전이 수원원이었다.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뒤엎던 기억밖에 없는데 경기가 끝나 있었다. 그 경기에서 쳐서 허탈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결과 얻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메이저리그 첫 다승왕 보인다

14승 AL 1위 계릿 콜 부상  
13승 류, 4차례 등판 가능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4·사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리그(AL) 다승왕 경쟁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AL 다승 부문 1위를 달리는 뉴욕 양키스의 에이스 계릿 콜이 부상 약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콜은 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와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이닝 동안 5피안타(1홈런) 2볼넷 2탈삼진 3실점(2자책점)을 기록한 뒤 4회 투구 도중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양키스 구단은 “콜은 왼쪽 햄스트링 긴장 증세로 교체됐다”고 전했다.

콜의 부상 상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부상 회복 상황에 따라 다승왕 경쟁이 요동칠 수 있다.

일단 류현진은 AL 다승 공동 선두 기회를 잡았다.

류현진은 7일 양키스전에서 승리를 추가하면서 13승 8패 평균자책점 3.77을 기록 중이다.

AL 다승 1위 콜은 이날 경기 전까지 14승 6패 평균자책점 2.73의 성적을 거뒀는데, 류현진이 다음 선발 등판 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면 다승 공동 선두가 된다.

AL 다승 경쟁은 류현진과 콜의 2파전 양상이다.

이 부문 3위인 오를랜드 에슬레틱스의 에이스

크리스 배시(12승 4패 평균자책점 3.22)은 지난 달 경기 중 얼굴에 직선타를 맞고 전력에서 이탈했다.

류현진은 앞으로 4차례 정도 선발 등판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타이틀 획득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이 MLB에서 다승왕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MLB 데뷔 첫해인 2013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NL) 다승 공동 10위 자리에 올랐다.

2014년에도 같은 팀에서 14승(7패 평균자책점 3.38)으로 다승 공동 12위를 기록했다.

다승 부문 최고 순위는 역시 14승을 기록한 2019년이다.

당시 류현진은 다저스에서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하며 NL 다승 부문 공동 6위를 차지했다.

류현진은 그해 평균자책점 전체 1위에 오르며 NL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FC의 ‘슈퍼루키’ 엄지성이 지난 8월 20일 26라운드 대구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14분 동점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2022 프로야구 4월 2일 개막... 팀당 144경기

아시안게임 기간 중단 안 해

프로야구 2022시즌이 4월 2일 시작된다.

KBO가 7일 제9차 이사회를 열고 2022년 리그 경기 일정 편성 원칙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규시즌은 4월 2일 개막하며, 팀당 144경기씩 총 702경기가 진행된다.

울스타전은 7월 16일에 펼쳐질 예정이다.

내년 9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2022년 9월 10-25일)이 열리지만 이 기간 리그는 중단하지 않는다.

대표팀은 앞선 실행위원회 결과 각 국제 대회에 맞춰 연령대별 선수를 선발해 구성하기로 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대표 선수들은 추후 구성되는 기술위원회를 통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